

서울史料叢書 第十

國譯 荷齋日記 (八)

1905.3.3~1911.윤6.2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 해제(解題)

- 1905년 3월 3일~1911년 윤6월 29일의 일기 내용을 중심으로 -

### I. 책의 편철과 체제

이번에 발간하는 하재일기 제8권은 규장각에 소장된 하재일기 전 9책 가운데 제9책(고 4655-44-9)에 해당되는 부분을 번역·탈초하여 펴낸 책이다. 원본에는 ‘하재일기 9지10(荷齋日記 九之十)’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9책과 10책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 9책과 10책을 함께 편철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번역대상 원본 자료의 분량은 300쪽이고, 1905년 3월 3일부터 1911년 윤6월 29일까지 약 6년 5개월간의 일기이다. 이 일기를 끝으로 하재일기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하재일기의 날짜는 모두 음력이며, 특별히 양력 1월 1일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내용 중에 양력을 별도로 표기하기도 했다.

하재일기 9책은 본 일기와 이면의 일기가 착종되어 있어, 자료를 볼 때 매우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시작부분부터 1905년 3월분과 1908년 3월분이 뒤섞여 있으며, 날짜의 간지(干支) 순서가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

이러한 혼란은 본 일기 뒷면에 다시 일기를 썼기 때문에 야기되는 것이다. 본 일기를 1905년 3월 3일부터 1908년 2월 29일까지 먹 글씨로 써 나가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본 일기 뒷면에 1908년 3월 1일 일기부터 마지막까지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하재는 1905년 3월 3일부터 1908년 2월 29일까지를 9책으로 여기고, 1908년 3월 1일~1911년 윤6월 29일까지를 10책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9책까지 쓰고, 10책은 9책의 이면에 기록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열과 구성을 이해하지 않고 일기를 보면, 날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 순서가 전혀 맞지 않고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규장각에서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은 이러한 일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촬영하였기 때문에 날짜의 간지 순서와 내용이 뒤엉켜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번역자이신 이종덕(李鍾德)선생님과 함께 규장각에 가서 자료를 직접 보면서 일별 간지 순서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1908년 3월 1일 일기부터 다시 처음 일기의 뒷면에 기록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규장각의 협조 아래 간지와 내용을 맞추어 대상 자료를 직접 복사 촬영하였으며, 원문 또한 본 위원회가 촬영한 것을 수록하였다. 따라서 본 책에 실린 원문 자료는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필름의 배치 순서와 다르다는 것을 밝혀둔다.

또한 먹물 붓글씨로 쓴 이면의 글씨가 배어나와 해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으며, 탈초와 번역을 맡으신 이종덕선생님이 노고가 컸다.

이번 9책을 마지막으로 하재일기는 끝나고 있다. 하재일기는 1891년 1월 1일부터 1911년 윤6월 29일까지 만 20년 7개월간의 일기로, 20여년 동안 일기를 쓰지 않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성실함을 갖추고 있으며, 기록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 II. 주요 내용

### 1. 번자회사의 변화와 진흥회사 동참

### 1) 번자회사의 변화와 쇠퇴

조선왕조 500여년 간 왕실 소용 자기를 구워 진상해왔던 사옹원 분원(分院)은 1883년 관청 선대제적 분원공소(分院貢所)로 전환되었다가, 1897년 근대적 번자회사(燐磁會社)로 재탄생하여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설립 초기 번자회사는 분원에 자본을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였으나, 점차 회사는 토지와 시설을 사원들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으며, 연말에 수입금을 사원들과 균등 분배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시기 번자회사는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운영과 생산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겪었으며, 회사 명칭도 번자회사에서 번사회사(燐砂會社)·사기회사(砂器會社)로 불리고 있었다.

1905년 6월에는 ‘재동 이 판서 완순군(完順君)’, 곧 고종황제의 사촌인 이재완(李載完)이 번사(燐砂)에 뜻을 두고 가마를 설치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가마를 설치하거나 분원 운영에 개입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천하지는 않은 것 같다.

1905년 7월에는 광주에 사는 판관(判官) 경의하(慶義河)가 궁내부 산하 경리원(經理院)으로부터 분원 기지(基址)에서 번조(燐造)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아내어 자기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경의하는 1906년 4월 서울에서 수야소조(水野小助) 등 일본인 3명을 데리고 와서 일본식 제조기법을 도입한 그릇을 만들었다.

1906년 10월에 양근 군수 양재익(梁在翼)은 여러 사람이 협동하여 번사주식회사(燐砂株式會社)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原)회사원을 불러 군수의 뜻을 전달하고 참여 여부를 물었으나, 대부분 사원들이 응하지 않았다. 이후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여 번사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동참한 사람은 양재익 금(金) 2(株), 면장 윤병일

(尹秉一) 금 2주, 지규식(池圭植) 금 2주, 함영섭(咸英燮) 금 2주, 이종락(李鍾洛) 금 1주, 이희철(李喜澈) 금 2주, 변주헌(卞柱憲) 금 2주 등이었다. 이후 번사주식회사는 번사회사·사기회사로 지칭되었으며, 자기의 생산·판매를 관할하였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의 본사에서는 1907년 6월에 분원의 가마세를 낱낱이 계산하여 올려 보내고, 또 가마세를 학교에 부속시키겠다는 방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대해 하재는 ‘여러 사람의 기업(基業)’을 빼앗으려 한다고 의아스러워 했다. 왜냐하면 가마세를 비롯한 본사의 수입은 사원들이 균분하여 왔기 때문이다.

1908년 5월에는 양근군 객사중건소(客舍重建所)에서 폐허가 된 회사 행랑 기와를 가져다 쓰겠다고 통보해 왔다. 결국 회사 행랑 기와는 철거되어 객사중건소로 실려 갔다.

1908년 6월에는 사기점과 토기점 현황을 조사하는 관찰부 훈령이 내려왔는데, “점명(店名)·지명·점주성명·공장인(工匠人) 수·제조기(製造器) 종류·1개월 평균 매매액”을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1910년 5월 하재는 사기 개량 관련 일로 승지 민준호(閔濬鎬)에게 자금 500환을 요청한 바 있었고, 6월에는 민준호와 사기회사 조직에 관한 일을 상의하였다. 1910년 7월 7일에는 서울에서 사기회사 발기 취지서와 영수증이 전달되어 왔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건대, 그 무렵 사기회사 발기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11년 1월 22일에 하재는 전 번사회사 기지(基址)를 영구히 매도한다는 증서를 작성하였지만, 서울의 한용식(韓龍植)은 “전 회사 기지는 방매하지 않는다. 각 호(戶)의 도지(賭地) 조항은 영구히 시행하지 말라”는 답을 보내왔다. 1911년 5월 하재는 서울에 올라가 한용식과 함께 1905년부터 1909년까지 5년간 가마세를 회계하여 계산하였다.

이시기에는 분원 자기업(磁器業)의 개량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서도 분원의 자기제조 역사(歷史)와 개량을 권면하는 기사를 실었다.

1909년 7월에는 분원 일동대회(一洞大會)를 열어 자기개량에 대한 일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자기 개량 사업을 추진할 회사를 조직하였다. 며칠 후에는 종로의 기독교청년회관에 가서 회장 이상재(李相在)와 여운형(呂云亨)·김도희(金道熙) 등을 만나 자기그릇 개량하는 일을 상의하였다. 이후 자기개량 주금을 거두어들였으며, 1910년 1월 12~13일에는 6천여 냥을 수금하기도 했다.

또한 1910년 2월에는 분원의 청년 이종진(李鍾振) 등 8명을 경성공업전습소(京城工業傳習所)로 보내 자기업(磁器業)을 학습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시기에도 분원은 그릇을 제작·판매하고 있었으나, 이전에 비해 쇠잔해졌다. 여전히 궁궐에 기명을 납품하였고, 1905년 8월에는 홍릉(洪陵) 기명을 만들어 올려 보냈으며, 시장 상인 등과도 거래하고 있었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지식(誌石)을 제작 판매하였으며, 1908년 9월에는 민영환(閔泳煥)의 묘를 옮기는 먼례(緬禮) 때 지식(誌石)을 제작하기도 했다.

## 2) 진흥회사와 시탄주식회사 동참

이번 일기에는 통감부 시기 보부상단(裸負商團)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동아개진교육회(東亞改進教育會)와 진흥회사(進興會社) 관련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땔나무를 공급하는 시탄회사(柴炭會社)에 주주로 참여하여 배당금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05년 9월 1일에는 상무사(商務社) 후속으로 전국의 보부상을 통

할하려는 동아개진교육위원회원이 나와서 “분원을 과거 상무사(商務社)처럼 조직하라”고 지휘하였다.

1906년 6월에는 양근군에서 상업회사(商業會社)와 관련하여 분원 상민(商民)을 일일이 책자로 만들어 오라는 관령(官令)을 내려 보냈으며, 이어 서울의 진흥회사에서도 상인 100명의 성명을 기록하여 올려 보내라는 전갈이 와서, 정리하여 올려 보낸 바 있었다.

이때 상업회사·진흥회사는 모두 일진회(一進會) 상공과(商工課)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된 진흥회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진흥회사는 1906년 4월에 설립된 보부상들의 회사로, 상업발전을 명목으로 보부상의 세력만회를 꾀하는 조직이었다. 1906년 6월에 진흥회사는 각 지방에 서한을 보내 설립 취지를 밝히고, 지사(支社)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1906년 6월 하순에 분원은 지사(支社) 인허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7월 초에 진흥회사 본사로부터 분원 지사 인허 문건을 받아왔다. 그리고 상민을 모아, 고본(股本)을 정하고, 지사 일을 맡아볼 사람을 선출하였다. 1906년 10월에 분원은 상표(商標) 문제로 본사와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이후 진흥회사 관련 기록이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1907년 정부에서 진흥회사의 첩문(帖文) 발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인허장 회수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1907년 12월 하재는 안면이 있었던 이규완(李圭完)과 한성재목시탄주식회사(漢城材木柴炭株式會社) 설립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규완은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갑오 이후 박영효와 함께 활동하던 인물이다.

시탄주식회사는 1908년 3월에 인허를 받았으며, 본사는 서울 무교동 86통 10호에 자리하고 있었다. 하재는 주주로 동참하였으며, 5월에는 주금(株金) 5원을 보냈다. 1908년 12월 26일에 제1회 시탄주식



회사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나, 하재는 위임장을 보내고 불참하였다. 이후 하재는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기도 했다. 시단주식회사에는 하재 이외에도 이취홍(李取弘)·이종우(李鍾佑) 등이 주주로 참여하였다.

## 2. 분원 일대 의병 활동과 교육 운동

### 1) 일제의 침략과 의병 활동, 그 사이에 낀 백성들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과 그에 저항하는 의병활동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1905년 10월에는 “대한(大韓)이 일본보호를 시행한다는 뜻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소식을 기록하고 통한(痛恨)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는 10월 21일(양 11. 17)에 체결한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 이른바 을사조약을 가리킨다.

이어 을사조약의 소식을 들은 양근군수가 의분을 이기지 못하여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려 한 사실을 안타까워 했다. 또한 을사5적 이근택(李根澤) 집안의 찬비(饌婢)와 침모(針母)가 주인의 역적질에 분노하여 뛰쳐나갔다는 소문을 기록하고, “저 두 여걸[女俠]은 불후·불멸할 대한의 빛”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민영환(閔泳煥)과 조병세(趙秉世)·홍만식(洪萬植)의 자결, 평양 병대 김봉학(金奉學)과 민영환 인력거꾼의 자살 소식을 기록하고 분통한 마음을 드러내었다. 1907년 2월에는 궁내부 협판 박용화(朴鏞和)가 칼에 찔려 죽었다는 사실을 적었다.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이 시작되었던 1907년 1월 16일(양력 2. 28)에는 동회(洞會)를 열어 국채 보상의 일을 널리 알리고 형편껏 의

연금을 거두기로 했다. 이에 분원 학교 학생들이 1,700여명, 마을 주민들이 18,000여명을 거두어 서울에 전달하였다. 이 때 하재는 4원, 동생 연식은 40전, 둘째 아들 영의는 1원을 냈다.

1907년 6월에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가 고종을 압박하여 순종에게 양위한 사실과 이준이 헤이그에서 활복자살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준의 충의지심(忠義之心)을 높이 평가하였다. 1910년 7월 25일(양 8. 29)에는 “대한 전국이 일본국에 합병” 되었음을 기록하고 한탄하였다.

1905년 5월에는 의병 40여명이 양근군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그 중 중군(中軍)은 총으로 자살하고 ‘난졸(亂卒)’들은 인명을 살상하고 다른 사람의 돈과 재물을 약탈하여 도망했다는 소문을 써 놓았다. 그는 ‘의병’이라 지칭하였지만 매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07년 7월 초에는 의병 70여명이 양근군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분원의 정은한(鄭恩漢)이 신고 오던 쌀을 압류했다가 풀어준 사실을 전하고 있다.

1907년 7월에는 양근군 이기용(李基容)이 분원에 편지를 보냈는데, 양근군 의병장으로 이백원(李伯元)을 추천하고 의병을 모집하고 있으니, 분원에서도 의병을 모집하여 오라는 내용이었다. 이 편지에 대해 하재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판하고 탄식하였다.

1907년 7월 18일에는 광주 의병 130여명이 분원으로 들어와 총 2자루와 군수전(軍需錢) 1,850냥을 마련해 주었다. 그 이튿날 두릉(斗陵) 강가에서 의병과 일본군이 교전하고 일본군이 마을에 불을 지르자, 일대 사람들이 의복과 물건을 챙겨 도피하여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계속하여 의병의 활동과 일본군의 공갈·협박, 마을 주민들의 피신 등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1907년 8월 5일 양근의병소에서 화약 100근을 남종면에 강제 배정

하자, 대전(代錢)하기로 하고 각 동별로 나누어 마련하였다. 며칠 후 양근 의병 400명이 분원 학교에 집무소를 차리고, 군수전을 요구하였다. 그 이튿날 일본군이 들어와 의병과 교전하였으며, 총알이 쏟아지고 포성이 진동하자 온 동네 사람들이 피신하였다. 이 전투에서 의병 2명이 사망하자, 동네 사람들이 시신을 매장하고 탄환을 거두어 반환하였다.

의병의 활동은 1910년까지 계속되었으며, 1910년 5월에는 해산군인 출신 의병장 강기동(姜基東)이 30여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분원에 들어와 백목(白木)과 학생모자 등을 요구하여 즉시 마련해 주자, 떠났다는 기록이 있다. 경기도 등지를 무대로 활동한 강기동은 1911년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이와 같이 의병활동이 활발해지자, 1907년부터 일제는 광주(廣州) 수비대와 양수두(兩水頭)수비대·고랑리헌병대 등을 설치하고, 의병을 진압하는 한편, 관권으로 각 동네 동임(洞任)을 수시로 불러들여 공갈·협박을 가하여 의병 협조를 차단하려 하였다. 1907년 10월에는 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했는데, 이때 분원의 호수(戶數)는 320호, 인구는 1,496명이었다.

이어 의병에 가담한 자들을 색출하여 고랑리헌병대에 ‘귀순’하게 하고, ‘귀순표(歸順票)’를 발급해 주었다. 분원에서는 한보여(韓甫如)·장주원(張主元)·정용안(鄭用安)·변금숭(卞今崇) 등이 지목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보여·장주원은 ‘귀순’하였다.

이외에도 분원 일대의 의병활동과 일제의 폭력적 진압, 그리고 의병의 활동과 일제의 폭력적 진압 사이에서 고통 받는 일대 주민들의 실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재는 명분 있는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협조적이었지만, 민간의 재물을 빼앗거나 강제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2) 분원 일대 교육 운동과 학교 설립

근대교육을 본격적으로 담당할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는 1886년 설립된 육영공원(育英公院)을 들 수 있으며, 근대적 사립학교는 1885년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培材學堂)이 첫 타이프를 끊었다. 이후 각종 관립·사립학교가 들어서 근대적 교육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1895년에 정부는 소학교령(小學校令)을 반포하고 소학교 교육을 장려하였다.

분원 일대에 근대적 교육을 담당할 학교 설립이 거론된 것은 1906년에 들어서면서 부터이다.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하재는 처음부터 분원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그에 관한 내용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1906년 1월 하재는 동네 청년들의 요청으로 귀천의 김 국장(金局長)·이종우(李鍾佑)와 함께 분원의 학교 설립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로써 학교 교육에 발을 들여놓았다.

1906년 4월 7일에 군수와 유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분원의 학교 개교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학은 36명이었고, 교사는 귀천에 사는 우강(于崗) 유태영(柳泰永) 박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근대적 학교 설립에 불만을 품은 자들의 방화와 익명투서가 잇따랐다. 1906년 10월말부터 학교에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계속 발생하였다. 교사에게는 “만일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의 집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투서가 전달되었고, 임원들에게도 협박 투서가 날아들었다. 1907년 3월 투서에는 “학교를 철수하고 예수교를 믿으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방화와 투서의 범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학생들의 교과서는 서울에서 사왔는데, 교과내용은 알 수 없다. 1909년 9월에는 학부에서 내려 보낸 교과서 각종 35책을 받았다.

분원보통학교 교사는 유태영박사가 1907년 1월에 그만두자, 후임으로 지평 사는 정경시(鄭慶時)가 부임했으며, 유박사의 아들 내완(來完)이 산술교사로 왔다. 1908년 1월에는 교사 정경시 전과훈도(專科訓導)를 관입관 4등으로 서임하는 임명장이 나왔다. 그 외에 유석우(庾錫祐)·박필환(朴弼煥) 등이 교사로 재직하였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했다. 1907년 5월에는 학생들이 교사와 맞서려 한 일이 있었고, 1909년 10월에는 3년급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불미스런 행동을 하여 교사가 격노하여 교과서를 화로불 속에 집어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학생들의 대죄로 해결되었지만, 교사와 학생들 간에 충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급여는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09년 윤2월 교사 ‘보수금(報酬金)’은 식비를 제외하고 매달 2천냥으로 결정하였다. 1910년 6월에 쌀 5되에 62냥 5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략 쌀 2가마니 정도에 해당되며,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보수였다.

1911년 3월에는 분원의 공립보통학교 위치를 용문학교(龍門學校)로 이설하고, 분원 공립학교를 사립(私立)으로 고치라는 예칙이 왔다. 이에 하제는 ‘어쩔 수 없이’ 사립학교 설립 청원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1911년 윤6월 19일로 분원의 공립보통학교가 폐지되고, 사립 종남학교(終南學校)로 개정하고, 유지방침연구회를 설행(設行)하였다.

학교에서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매년 7월 25일에는 고종의 탄생일인 만수성절(萬壽聖節)을 경축하는 행사를 열었다. 그 외에 고종의 즉위 기념일인 흥경절(興慶節, 12월 13일), 조선왕조를 개창한 개국기원절(開國紀元節, 7월 16일)에도 점등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축하행사를 가졌다. 1907년 1월에는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의 소식이 전해지자, 제일 먼저 학생들이 의연금 1,700여냥을 거두어 전달하기도 했다.

1910년 2월에는 졸업학생 9명의 명단을 게시하고,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를 대본으로 한 연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서사건국지는 스위스의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전설적 영웅 빌헬름 텔의 일대기를 다룬 내용이다.

이시기 분원 일대에는 분원 보통학교 이외에 야학교와 여학교 등이 들어서 운영되었다.

1907년부터 자신야학교(自新夜學校)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1908년 9월 27일 자신야학교(自新夜學校) 낙성식 연회가 있었다. 야학교 수업시간은 보통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였으며, 때로는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 진명야학교(進明夜學校)와 명신야학교(明新夜學校) 등이 있었다.

1910년 8월에는 여학생 11명을 모아 여학교를 개설했다. 이때 여교사로 김혜선(金惠宣)이 부임하였는데, 가족으로 어머니·여동생·딸을 데리고 왔다. 당시 여학교 명칭은 정선여학교(貞仙女學校)로 짐작된다. 1911년 6월에 여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였으며, 결국 1911년 6월 27일에 여교사 김혜선이 서울로 돌아갔다. 분원 일대에는 정선여학교 이외에도 기독교양성여학교(基督養成女學校)도 있었다.

분원보통학교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의 중등교육과정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기도 했다. 1909년 5월에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우윤기(禹允基)·지봉균(池鳳均)·이종억(李鍾億)·김인상(金仁相)·이용직(李容稷)·이병두(李秉斗)·변태희(卞泰熙) 등이 서울 연동에 있는 중등과정의 경신학교(敬新學校)에 입학했다. 분원에서 서울로 유학한 학생들인 셈이다. 가끔 하재는 경신학교에 가서 분원 학생들을 만나보곤 하였다. 1909년 9월에는 이병두(李秉斗)가 서울의 사립 중등과정인 기호학교(畿湖學校)에 입학했다.

1909년 2월에는 서울 동부 이화동공업전습소(梨花洞工業傳習所)와

남부 명동상업학교(明洞商業學校) 학도 모집서가 우편으로 보통학교에 배달되었다.

### 3) 분원 일대 향촌 질서와 동회(洞會) 운영

분원 마을은 매년 말 동회(洞會)를 열어 동임을 선출했다. 1905년 12월에는 함치구(咸致九)가 동장에, 1907년 12월에는 김영국(金永國)이 동장 겸 자위단장에 선출되었다. 1908년 6월에 김영국이 사퇴를 요청하고 서로 동임을 맡지 않으려 하자, 7월 동회에서 동장 월급을 800냥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선출된 이종락(李鍾洛) 등도 중간에 자퇴하는 등 동임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선출된 동임들은 마을 공동의 일을 추진해야 했고, 관청과 일본헌병대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처리해야 했으며, 때로는 옥에 갇히거나 태장(笞杖)을 맞는 등 곤욕을 치렀다. 1905년 7월에는 우천 장시(場市) 일을 관할 양근군에 고하지 않고 바로 궁내부에 월소(越訴)한 일로 동임 함치구가 양근군에 잡혀가 태장 5대를 맞고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1909년 1월에는 ‘가옥 칸수와 술·담배’에 대한 조사 보고를 처리했으며, 그 외에도 각종 호구조사와 세금 등에 대한 일을 감당해야 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시기 동임은 의병과 일본군 사이에서 그들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고 주민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야 했다. 1907년 8월에는 의병이 요구하는 군수전(軍需錢) 1만냥을 거두어 동장이 창의소에 갖다 주었으며, 1909년 6월에도 동회를 열어 의병이 요청한 군자금 8천냥을 거두려 하였으나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군 또한 분원 근방 양수두 등지에 헌병대를 설치하고 의병과 주민들의 동태를 감시하였으며,

의병의 유입과 주민들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했다.

마을 전체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동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였다. 1907년 1월에는 동회에서 국채보상 의연금을 능력껏 마련하기로 하고, 18,000냥을 수합하여 제출하였다. 1908년 1월에는 석유전매소를 설치하여 각 학교에 등유를 공급하도록 하였고, 1909년 7월에는 자기(磁器) 개량 일을 협의하고, 회사를 조직하였다.

동회에서는 마을의 풍습을 교정하고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벌을 가하기도 했다. 1905년 6월에는 동장을 능멸하고 술주정을 한 박익삼(朴益三)을 동정(洞庭)에 잡아놓고 태장(笞杖)을 때렸으며, 1906년 7월에는 이기채(李基采)와 이원심(李元心)이 서로 구타하고 싸우자, 속전(贖錢) 8원을 받았다. 1908년 7월에는 동임에 대하여 불미스런 이야기를 한 우석준(禹錫俊)에게 태형 20대를 때리고 속전을 받았다.

1905년 5월에는 “남의 자제를 유혹하여 돈과 재물을 약탈하고 전답 문권을 훔쳐다 팔아먹는 폐단을 일체 엄금한다”는 관찰부 훈령이 내려왔는데, 이는 속임수에 현혹되어 집안·친척의 전답과 선산 문서를 잡히고 돈을 벌려는 사회적 세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906년 11월에는 어떤 도적이 분원의 김여준(金汝俊) 등에게 2만냥의 돈을 거두어 석호(石湖)로 갖고 오라는 투서를 보냈으며, 우천의 이여순(李汝順) 등 세 사람에게도 2만냥의 돈을 갖고 오라는 투서를 보냈다. 근방의 김흥서(金興西)에게도 7만냥의 돈을 보내라는 투서가 있었다.

1909년 8월에는 서울 부근에 콜레라가 크게 번져 매일 사상자가 몇 백명씩 발생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1911년 2월에는 출가한 정선여학교 학생 최해만(崔海萬)이 재판을 통해 이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3. 종교 활동 및 일상사

#### 1) 기독교·천도교 입교와 활동

하재는 분원 일대에 동학이 휩쓴 1893~1894년경 동학 입교를 권유받았으나,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가담하지 않았다. 그러나 1905년 이후 기독교와 천도교에 입교하였으며, 교리를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였다.

1905년 9월 말, 미국 기독교 전도부인이 분원의 박봉래(朴鳳來) 집에 왔을 때, 하재는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찾아가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초창기 분원 기독교 신도들은 박봉래 집에 모여 예배를 거행하였으나, 10월에 들어 분원 구 관사(官舍)를 교회당으로 정하고, ‘구세교회(救世教會)’라는 현판을 달았다. 이후 구 관사는 분원학교 부지로 내어주고, 1906년 5월 한성천(韓聖天) 집을 구하여 교회당으로 삼았다.

하재는 주일예배·3일예배 등에 성실하게 참석하였으며, 크리스마스·부활절 등의 기념일 행사에도 참여하여 추모기도를 올렸다. 또한 그는 성경과 세례문답 등을 읽으면서 기독교를 공부하였다. 입교한 후 하재는 매년 봄 거행해 왔던 동내 신사(神祀)에 불참하고, 온 중일 교회당에서 성경책을 읽기도 했다.

그러나 1906년 4월에 미국 총리사(摠理使) ‘시(柴)’씨가 찾아와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재는 다음에 받겠다는 말로 거절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으며, 아들 영인(榮仁)도 세례를 받지 않았다.

교우들 간의 친목 활동과 왕래 또한 활발하였다. 이천·여주·용인 등지의 신도들이 수시로 분원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보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서울 교회와도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었다. 1909년 7월에는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김도희(金道熙)·여운형(呂云亨)·이상

하재일기

재(李商在) 등을 만나 사기그릇 개량하는 일을 의논하기도 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하재의 활동은 1910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11년에 들어서 천도교(天道敎)로 개종(改宗)하였다.

1910년 3월에 ‘단군 등선(登仙)한 날’, 곧 어천절(御天節)을 언급하고 있고, 5월에는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를 읽었다. 1911년 3월부터 천도교인 교식(敎式)에 참여하였는데, 이 무렵 천도교에 입교한 것으로 보인다. 1911년 4월에는 천도교중앙총본부에 가서 의암성사(義菴聖師) 손병희를 만나고, 직원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또한 그는 《천도교초등교서(天道敎初等敎書)》 《대종정의(大宗正義)》 등 천도교 관련 책자를 보았으며, 1911년 윤6월에는 《천도교월보》를 받아 구독하였다.

하재일기 제3책의 일기 뒷면에 게재된 ‘턴도교력사’는 아마도 이 무렵 하재가 직접 쓴 것으로 판단된다.

1905년 10월에는 불교의 한 종파인 정토종교회(淨土宗敎會)에서 입회(入會)를 권면하고, 분원 구 관사를 불당(佛堂)으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 2) 일상적 생활사

50대 후반에서 환갑에 이르는 이시기 하재는 각종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가족과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는 슬픔을 겪었다.

하재는 위장병과 견비통(肩臂痛)·치통(齒痛) 등의 병고에 시달렸으며, 이를 다스리기 위해 각종 약을 복용하고 민간요법도 함께 시행하였다. 어깨 통증이 격화되자 고양이 가죽과 소변·시래기·솔잎 등을 이용하고, 치통에는 피마자유를 사용하는 등 각종 민간요법을 동

원하였다.

1905년 2월에 양잿물[洋灰水]을 잘못 마시고 위독한 상황에 처했던 넷째 아들 영지(榮智)가 시름시름 앓다가 5월에 죽었다. 1910년 4월에는 천식을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으며, 효자였던 하재는 망극한 슬픔에 빠졌다.

1906년 2월에는 손녀의 혼례를 치렀다. 손녀사위는 분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신학교에 들어간 이종억(李鍾億)이었다. 그런데 손녀는 시어머니의 학대와 남편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와 집안의 근심이 되었다.

1907년 1월에는 함께 시를 짓고 문학을 논했던 스승과 같은 홍 옥포(洪玉圃)가 약을 마시고 자결했다. 하재는 애인 벽운루(碧雲樓)가 병들어 고통스러워하자, 1908년 3월 프랑스[法國] 의사를 초청하여 침을 맞고 약을 지었으며, 이어 청나라 왕의(王醫)를 불러 약을 짓기도 했다. 또한 벽운당의 병세가 악화되자, 아예 벽운당에 침구를 갖다 놓고 수발을 들었으나 결국 4월초에 사망하였다.

하재는 1911년 6월 17일에 회갑을 맞이하였으며,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그는 종교 서적 이외에도 이 무렵 발간되어 유행하는 각종 책들을 읽었다. 그가 읽은 책은 《동국역사(東國歷史)》 《대한역사(大韓歷史)》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이순신전(李舜臣傳)》 《음빙실자유서(飲氷室自由書)》 등을 비롯하여 각종 신문과 잡지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각종 세시풍속과 통과 의례, 놀이문화, 일상사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재는 이 일기를 끝으로, 자신이 몸소 편철한 표지에 “신해 윤6월 29일 필(畢)”이라고 적고, 스스로 일기 쓰기를 마감했다. 1891년 1월 1일부터 1911년 윤6월까지 무려 20년 7개월에 걸친 일기 쓰기의 대

## 하재일기

장정을 마치고 있다. 하재의 일기는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일기와는 달리, 자신의 내면과 일상적 자질구레한 일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어, 더욱 인간적이고 사실적이었다.

하재일기는 평민 계층의 공인(貢人) 지규식(池圭植)이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된 이후 일제 식민지로 편입된 시기까지 격동의 세월을 살아간 이야기가 매우 잘 드러나 있다. 사옹원 분원(分院)의 공인으로서 분원의 경영과 도자기의 공궐 납품 및 시장 판매 상황, 그가 직접 듣고 보거나 경험했던 각종 정치·경제·사회상, 분원 일대의 향촌 질서, 세시풍속·통과의례·가족관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매우 역동적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시인으로서 많은 시를 남기고 있는데, 그의 시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세월의 무상함, 자신을 둘러싼 현실과 정치·사회적 풍자, 개인적 아픔 등이 담겨 있다. 그 외에 각종 약방문 관련 기록이 수두룩하여 당시 민간의 한의학처방을 엿볼 수 있고, 유학적 소양이 풍부한 그가 기독교 신도로서 활동하다가 다시 천도교에 입교한 것 등을 통해 종교에 대한 당대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교육자로서의 활동 또한 주목된다.

**박 은 속**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 범례(凡例)

- 이 책의 국역 대본인 하재일기(荷齋日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도서번호는 ‘고 4655-44’이다.
- 이 책은 규장각 소장 하재일기 전 9책 가운데, 제9책(1905. 3. 3~1911. 윤6. 29)을 번역·탈초하여 원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 번역 대상 제9책은 본 일기 이면에 다른 시기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뒤섞여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날짜의 간지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순서를 맞추어 재편집하였다. 따라서 규장각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로필름 순서와는 차이가 있다.
- 번역은 원래의 뜻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직역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의역(意譯)을 곁들였다.
- 번역문 가운데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관직명과 전문용어 등은 ( )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역사용어와 고어(古語) 등은 각주를 달아 해설하였다.
- 탈초문 가운데 원문에서 누락된 글자는 < > 안에 넣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으며, 알아볼 수 없는 글자는 ‘□’로 표기하였다.
- 원문의 잘못된 글자는 탈초문에서 바로잡았으며, 원래 글자는 그대로 두고 [ ] 안에 바로잡은 글자를 넣었다.
- 원문의 원래 규격은 가로와 세로가 20.5×28.5cm이나, 본 책의 판형에 맞추어 축소하여 실었다.



## 목차(目次)

해제(解題) .....	3
범례(凡例) .....	21

### 국역

을사(1905) 3월 .....	31
4월 .....	40
5월 .....	44
6월 .....	49
7월 .....	53
8월 .....	57
9월 .....	61
10월 .....	66
11월 .....	70
12월 .....	78
병오(1906) 1월 .....	82
2월 .....	85
3월 .....	89
4월 .....	94
윤4월 .....	98
5월 .....	103
6월 .....	106
7월 .....	110
8월 .....	114

	9월 .....	120
	10월 .....	123
	11월 .....	128
	12월 .....	132
정미(1907)	1월 .....	137
	2월 .....	140
	3월 .....	143
	4월 .....	147
	5월 .....	151
	6월 .....	154
	7월 .....	159
	8월 .....	163
	9월 .....	168
	10월 .....	174
	11월 .....	183
	12월 .....	187
무신(1908)	1월 .....	193
	2월 .....	197
	3월 .....	200
	4월 .....	205
	5월 .....	208
	6월 .....	212
	7월 .....	217
	8월 .....	224
	9월 .....	229



	10월 .....	233
	11월 .....	237
	12월 .....	241
기유(1909)	1월 .....	246
	2월 .....	249
	윤2월 .....	253
	3월 .....	256
	4월 .....	259
	5월 .....	264
	6월 .....	267
	7월 .....	270
	8월 .....	275
	9월 .....	279
	10월 .....	284
	11월 .....	288
	12월 .....	291
경술(1910)	1월 .....	296
	2월 .....	299
	3월 .....	302
	4월 .....	306
	5월 .....	309
	6월 .....	313
	7월 .....	316
	8월 .....	319
	9월 .....	323

	10월 .....	326
	11월 .....	329
	12월 .....	332
신해(1911)	1월 .....	337
	2월 .....	340
	3월 .....	343
	4월 .....	347
	5월 .....	350
	6월 .....	354
	윤6월 .....	357

**탈 초**

을사(1905) .....	365
병오(1906) .....	397
정미(1907) .....	435
무신(1908) .....	474
기유(1909) .....	512
경술(1910) .....	550
신해(1911) .....	582